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1)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48호(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발체

6월호 게재

- 1.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의 중요성
- 2. 사료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7월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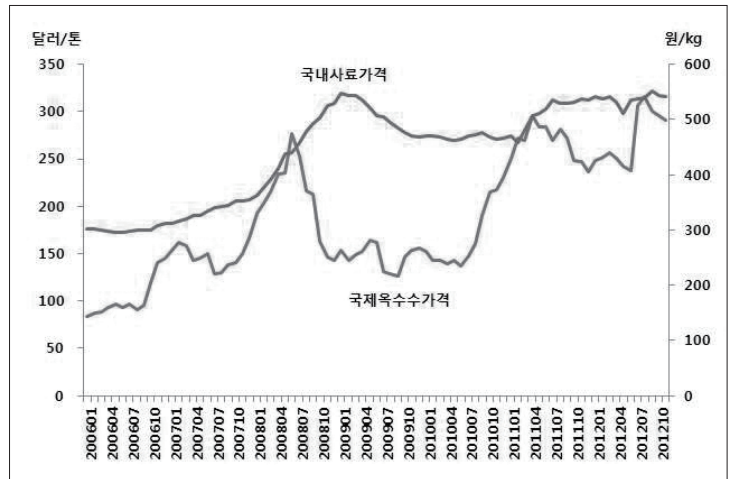
- 3. 사료 정책에 대한 축산전문가 평가
- 4.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로드맵

1.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의 중요성

▣ 국제곡물가격은 2012년 8월에 사상 최고가인 톤당 316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미국에 겨울가뭄이 발생하여 국제곡물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작년 사료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 올해도 사료곡물의 가격은 다시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사료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옥수수 가격이 2012년 8월에 톤당 316달러 기록

그림 1. 옥수수 선물가격과 사료가격 동향(2006.1~2012.12)



자료: CBOT, 농식품부.

○ 가뭄으로 작년 최악의 여름을 겪은 미국 중부지역의 가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남부 대평원 지역의 경우 많은 목초지 사육조건이 악화되고 있음

- 미국 농무부 11월 26일자 경작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올 겨울밀 경작지 조건 중 '좋음(good)' 또는 '매우 좋음(excellent)' 단계에 해당하는 면적은 33%로 전년의 5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사료비가 축종별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62%로

사료 가격의 상승은 축산농가의 비용 증가로 직결

- 우리나라는 배합사료의 원료인 사료곡물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곡물가격은 약 4~7개월 후 사료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됨
-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배합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축산농가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을 악화시킴
 -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은 우유 61.5%, 육계 60.2%, 계란 57.5%, 돼지 50.0%, 한우 40.2%임

▣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축산물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내 소비자의 효용 감소

- 사료가격과 우유가격은 93%의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계란은 87%, 닭고기는 82%, 돼지고기는 62%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사료곡물 수급 및 사료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제시가 시급한 실정임

2. 사료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사료 수급 및 가격 정책의 목표는 사료곡물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국내 사료가격을 하향 안정시켜 축산물 생산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내 소비자에게 질 좋고 저렴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①해외로부터 사료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안, ②곡물과 사료의 유통비용을 낮추는 방안, ③배합사료 가격을 안정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방안, ④

표 4. 사료곡물의 수급 및 사료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검토 대상 정책

	정책대안	주체	추진상황	정책평가
원료의 안정적 확보 및 원료가격 변동성 최소화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	정부, 업체	추진 중	성과 미흡
	국제곡물 유통회사 설립	정부, 업체	추진 중	성과 미흡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정부, 업체	추진초기	장기 소요
	선물시장 이용 및 환율 대응	업체	-	추진 필요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	정부, 업체	-	비용 소요
원료 공급 비용 절감	사료곡물 할당관세	정부	대부분 해당	효과 적음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업체	실시 중	구매단위 확대 등
사료가격 및 농가경영 안정	사료가격안정기금	정부, 업체, 농가	논의 중	장기관점에서 추진
	사료가격 조절	정부, 업체	-	현실적으로 어려움
	사료구매자금 지원	정부	실시 중	-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정부, 업체	실시 중	강화 필요
기타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	정부, 업체, 농가	실시 중	강화 필요
	조사료 공급 확대	정부, 농가	실시 중	강화 필요
	부존자원 이용	정부, 민간	-	추진 필요

» 집중탐구

대체원료 개발과 조사료 및 부존자원 이용방안 등임

-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네 가지 측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어서 축산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함

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 및 민간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2009~2018)’을 추진 중

2.1.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

▣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사업 추진

- 해외에 농업개발이나 기존의 농지를 구매하여 직접 사료용 곡물을 재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방안으로 2007년부터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관심

▣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도 성과는 미미

- 해외농업개발 기본계획(2009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곡물메이저 수준의 경쟁력 확보는 어려운 실정임
- 농장형 해외개발은 안정적 생산이 실현되기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생산된 곡물의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필요

표 5. 해외 곡물 생산·유통을 위한 농업개발 진출기업

구분	진출 국가	진출기업
농장형 (생산형)	러시아 (연해주)	서울사료, (주)현대자원개발, 아그로상생, (주)유니베라(구 남양알로에), (주)아로 프리모리에, (주)바리의 꿈(동북아평화연대), 아그로-아무르(코리아통상), (주)셀트리온
	몽골	센트럴 파크, 가은 팜, 에프앤피, 알타이 티앤씨
	호주	CJ제일제당
	캄보디아	성문, M에탄올, 에이퍼플, 대원플러스건설, 전남해외농업자원개발
	필리핀	코민
유통형	라오스	(주)에코프라임
	인도네시아	(주)삼양제넥스, (주)청송씨에스
	브라질	돌나라통상(포르모사이 오아시스 농장)
	인도네시아	팜스코
	캄보디아	코지드,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
	필리핀	한국자원개발
	라오스	(주)코라오에너지
	인도네시아	(주)팜스코, (주)카스코리아
미국	한진해운	

자료: 김완배(201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2012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워크숍 발표자료집,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 해외농업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대부분 초기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임
 - 참여 기업들의 현지정보 부족과 대상국가의 관 계시설 미비 및 유통 인프라의 한계 등으로 실패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국제정세, 특히 개발대상국의 정치·경제 사정 에 따라 곡물의 해외 반출이 제약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위험성이 상시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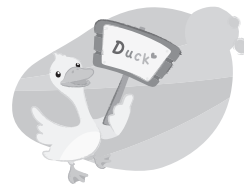
2.2. 국제곡물 유통회사(곡물메이저) 육성

▣ 개별기업이 정부지원을 통해 국제곡물유통과 국내수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

- 곡물 수출국가에서 기존의 곡물 유통업체를 인수하거나 투자를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사료곡물의 유통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내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도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임
 - 곡물생산기지 개발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원료의 반입이 가능하고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농장형 개발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도 1960년대 농장형의 해외자원 개발 실패 이후 1980년대 들어 post-harvest 전략으로 전환하여 유통시설에 대한 해외투자 추진
- 국내에서 2012년까지 해외농업개발자금을 지원 받아 해외 곡물유통을 위한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6개 국가에 8개 기업임(표5)
 - 그러나 이들 기업체의 사업실적은 미미한 상황

▣ 민·관 합작 곡물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곡물 유통회사를 인수 또는 투자할 계획이지만, 미국 시장의 호황으로 추진상황 부진

-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국에 산지 및 수출 엘리베이터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임
 - 민·관 합작 곡물회사 AGC(aT Grain Company)를 설립(2011.4.28)하여 산지 수출 엘리베이터 등 곡물유통망을 확보 노력 중
-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곡물시장 활황으로 곡물업계의 매각의향이 거의 없고, 매물도 과도한 프리미엄을 요구하여 기업 인수 또는 지분 참여를 통한 미국 내 곡물유통망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AGC 운영과정에서 각 사가 이익실현의 핵심 기능인 판매사업을 희망하는 등 참여사별 이해관계 및 역할분담이 어려워 컨소시엄의 이탈 가능성이 높음



2.3. 수입사료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 사료원료 중 옥수수 비중이 높고, 주요 수입국으로 옥수수는 미국, 소맥은 호주, 대두박은 남미 등으로 원료와 수입국이 편중

- 사료원료는 크게 곡류, 강피류, 식물성박류, 동물성단백질, 무기질원료로 구분되며, 전체 원료 중 곡류가 51.6%, 식물성박류가 24.8% 차지함
 - 2011년의 원료사용 총량 1,669만 4천 톤 중 옥수수와 소맥 등 곡류가 862만 2천 톤으로 전체 원료 사용량의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
 - 대두박, 채종박 등 식물성박류가 전체의

24.8%인 414만 톤을 차지

- 강피류, 동물성단백질, 무기물 등은 23.6%가 사용되고 있음

- 사료원료 중 옥수수는 미국, 소맥은 호주, 대두박은 남미, 그리고 식물성박류 원료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국한되어 있어 원료별 수입국이 매우 제한적임

-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의 경우 수입량의 약 80%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특히 곡물 무역은 소수 메이저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들 곡물메이저들의 독과점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표 6. 배합사료용 수입 및 국산원료 사용실적 비율

		곡류		강피류		식물성박류		동물성단백질		무기물/기타		계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00	수량	259	8,166	1,162	391	1,135	2,200	135	21	1,232	290	3,923	11,068
	비율	3.1	96.9	74.8	25.2	34.0	66.0	86.5	13.5	80.9	19.1	26.2	73.8
'05	수량	185	8,183	1,114	428	976	2,540	113	13	1,342	239	3,730	11,403
	비율	1.2	5,401	7.4	2.8	6.4	16.8	0.7	0.1	8.9	1.6	24.6	75.4
'11	수량	252	8,370	1,348	776	929	3,208	133	6	1,552	120	4,214	12,480
	비율	6.0	67.1	32.0	6.2	22.1	25.7	3.2	0.0	36.8	1.0	100.0	100.0

단위 : 천 톤, %
자료 : 한국사료협회, 각 연도 사료편람.

▣ 사료원료 다양화와 수입선 다변화 노력에도 성과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 소요

- 최근 유럽계 곡물메이저와 전략적파트너십을 구축(2012.6.14)하여 수입선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음
 - 계약조건 : 최소 20년간 품목 구분 없이 연간 100만 톤 곡물 공급
 - 유럽계 메이저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초

기단계에서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

- 국가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남아공, 남미, 우크라이나, 인도 등 사료원료의 수출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발이 필요하며, 사료원료의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곡물 외에 대두박의 대체품목으로서 팜박, 주정박 (DDGS), 야자박 등으로 품목다양화 필요

- 원료의 수입국 및 수입원료의 다양화는 세계 사료원료 수출국의 한계성 또는 원료 간 가격변화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당장의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2.4. 선물시장 이용 및 환율 대응

▣ 선물시장 또는 베이스스 거래 이용을 확대하여 급변하는 국제곡물 시장의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

- 사료원료를 지속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원료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확보 문제보다는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맞춰 위험을 분산시켜 사료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임
- 일부 대기업의 면접조사 결과, 농산물 선물거래를 이용한 구매량은 전체 구매량의 20~30% 정도인 것으로 보고(유영태, 2008)되고 있음
 - 전체 수입량을 고려하면 선물거래를 통한 구매량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현재의 주요 구매방식인 국제공개경쟁입찰과 함께 선물거래 또는 베이스스 거래를 확대하여 가격 급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베이스스 거래의 경우 옥수수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소맥, 대두박 등 거래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병행하여 국제 시세변동에 순응한 적기구매 즉, 경기변동에 맞추어 원월도 및 근월도 구매를 적절히 혼용하여 가격 불안정에 대응
- 선물거래 및 베이스스 거래의 확대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지만, 기업의 내외부적 문

제로 추진이 미진한 상황임

- 기업의 선물메커니즘 인식 부족, 헤징의 목표가격 부재와 같은 지식부족, 해외신용거래의 어려움, 인력 및 보상체계 등 예산 문제, 협회의 대행 구매 및 회계처리의 복잡성, 자료의 부족 등

▣ 환율 변동에 대응

- 배합사료 제조비용 중 곡물 등 원재료비 비중이 85%를 상회하고 있어 원료가격 및 환율의 변동은 사료공급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특히 2007년 이후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환율 1% 변동이 사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0.6%~0.6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 사료원료 가격의 변동 시에는 원료 간 국제시세의 등락에 따라 같은 류(類) 간에 어느 정도 대체 사용이 가능함
 - 환율은 모든 수입사료에 공히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상쇄시킬만한 효과적 수단 없이 환율 변동성이 사료가격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환율을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외환선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곡물 수입업체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 상황임

2.5.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 검토

▣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료곡물 비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수입 사료원료는 업체 간 공동구매를 통해 전량이 해상운송을 통해 국내에 반입됨에 따라 수출 국가의 선적지연 또는 선박사고 등으로 인한 도착지연 시는 원료 부족에 따른 안정적 사료공급

» 집중탐구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

-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를 마련할 필요

- 현재 일본에서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를 운영 중

○ 최근과 같은 국제곡물가격의 급등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또는 세계적으로 곡물파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곡물가격과 사료가격의 충격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원료곡물 비축제도의 본질적 효과가 낮을 것으로 평가됨

○ 원료곡물 비축은 초기 하드웨어의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지속적으로 저장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2.6. 사료곡물 할당관세 적용

■ 현재 사료곡물은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대부분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추가적인 효과는 미미

○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부담의 완화를 위해 2013년에는 23개(2012년 22개) 사료원료에 대해 기본세율이나 잠정세율에 비해 낮은 할당관세(관세율 0~4%)를 적용하고 있음

○ 일부 사료원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 사료원료 곡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사료업체의 할당관세로 인한 사료가격 인하 효과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근체류 등의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 품목 조정이 필요

2.7. 사료원료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 원료 구매 단위의 대형화와 항구별·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운송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해상 물류비용을 절감할 필요

○ 사료원료의 해상운임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구매단체 간 또는 도착항구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운송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해상운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파나마스 단위(5만~5만 5천 톤)로 구매하던 옥수수를 캄사르막스 단위(최대 8만 톤)로 구매할 경우 단위당 해상운송비용 절감 가능

- 과거에는 캄사라막스급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국내 사료원료 신항이 개발되면서 원료구매단위의 대형화가 가능

○ 이외에도 사료원료에 대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서 내륙운송의 경우 대형트럭의 이용, 야간수송의 활용을 들 수 있음

- 이와 함께 낙곡(落穀) 등 원료의 운송 및 공장 입고 과정에서의 원료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비용 관리가 필요

2.8.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기에는 기금의 적립이 어렵고,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로 장기적인 접근 필요

○ 최근 들어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축산물가격 하락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설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국회에 상정된 '사료가격안정기금'관련 법안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최근과 같은 국제곡물가격

상승기에 기금을 도입할 경우 기금의 적립이 어렵고, 참여주체의 이해관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인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사료업체 납부기금의 사료값으로 전가, 납부자와 수혜자의 불일치, 축종 간 이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일종의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9. 사료가격 조절 등의 가격인상 억제

- ▣ 정부가 시장가격을 직접 조절할 경우 업체의 반발이 심하고, 결국 세금으로 사료업체와 축산 농가를 지원해야 함
- 사료가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사료가격 안정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사료업체의 영업이익과 농가 소득을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움

2.10. 사료구매자금 지원

- ▣ 국제곡물가격 급등 시 배합사료구매자금을 농가에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정부는 현금거래, 선급금거래,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는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는 농가가 사료구매 시 외상거래를 할 경우 높은 연이율이 부과되는 가격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임

- 사료구매자금지원으로 2013년에 1,700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농가당 축종별로 1,000~4,000만 원을 지원함
 - 2008년 국제곡물가격 폭등 당시 1조 5,000억 원, 2009년에는 1조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금리 1% 조건으로 농가에 지원
- 사료구매자금지원은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 경영안정을 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됨

2.11.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 ▣ 정부는 사료산업종합지원자금의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제조시설개선자금으로 사료업체 지원
 - 사료산업종합지원자금의 2013년도 사업규모는 950억 원으로 사료업체의 사료원료구매자금과 사료제조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음
 - 농협 및 민간기업, 그리고 단미사료업체에 융자(금리 3~4%) 지원
 - 2011년 배합사료 시장규모가 8조 원, 사료원료 수입액이 5조 7천억 원(51억 3천만 달러)인 상황에서 자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임
 - 따라서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가격안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입규모에 맞게 사업규모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금리 4%도 낮출 수 있는지 검토 필요

표 7.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208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37,256	50,400	60,400	40,400	60,400	95,000
용자	136,471	50,000	60,000	40,000	60,000	93,500
자부담	785	400	400	400	400	1,500

단위: 백만 원
자료: 농식품부

2.12.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

▣ 곡물 중심의 배합사료를 저렴한 기타 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 대체원료 개발은 사료원료의 다양화와 함께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기존의 곡물 위주의 배합사료를 보다 저렴한 식물성박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함
- 영양성분상 옥수수과 같은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료 개발이 쉽지 않아 기술개발의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R&D 투자가 필요함

2.13. 조사료 공급 확대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조사료 기반확충은 정책 효과가 높은 편

- 정부는 국산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조사료용 기계, 장비,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지원하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 중임
- 조사료 공급 확대는 현재 정부가 축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조사료 재배면적을 37만 ha로 확대하여 자급율을 90%까지 달성할 계획임

2.14. 부존사료자원 이용(농산부산물, 식품부산물)

▣ 조사료 공급 확대와 함께 농산부산물과 식품부산물을 이용한 사료 개발 시급

- 일본의 경우 부존사료자원 이용확대를 위해 에코피드(eco-feed)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과거 식품부산물의 사료화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사료의 품질저하로 인한 축산물의 품질저하 문제와 사료의 안전성 문제 등으로 중단됨
- 최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에코피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임

표 8. 조사료 자급율 및 재배면적

	최근 3개년 실적			2013년 목표
	2010	2011	2012(p)	
조사료 자급율(%)	82	83	86	88
사료작물 재배면적(천ha)	244	260	330	350

자료: 농식품부, 2012,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표 9. 연도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재정투입 계획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20년까지
합계	100,200	106,546	123,964	153,984	1,028,100
보조	89,800	71,711	91,346	106,697	767,300
융자	10,400	34,835	32,618	47,287	260,800

단위: 백만 원

자료: 농식품부, 2012,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